넉넉한 생각이라면 지혜에도 걸리지 말아야 한다

☞ 19면에서 계속

뜻입니다, 다. "걸리지 마라" 하는 것도 "걸리지 않는다" 하는 것도 거기에 모두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걸리지 않는다 하는 거, 멈추지 않는다 하는 것은 둘로 보지 않는다는 것도 되는 것입니다. 둘로 보지 않기 때문에 걸림이 없지, 둘로 본다면 걸림이 벌써 있죠.

그래서 풀 한 포기도 둘로 보지 말라는 거고 버러지 하나도 둘로 보지 말라는 거죠. 둘로 보지 않고 한데 뭉쳐서 씀씀이를 하는 도리가 바로 한마음에서 나가고 한 마음으로 들고, 의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이 현재 의식 쪽, 잠재의식 쪽이 동시에 써집니다.

여러분이 물질적인 이 몸뚱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몸뚱이 속에 들어 있는 나 자신의 그 모두를 100% 쓸 수가 없습니다.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이 그 도리를 모른다면 몸뚱이로는 부지런하나 머리로는 게으르다 이겁니다. 머리로는 따라갈 수가 없어서, 저 서천국이나 딴 나라는 몸뚱이는 게을러도 머리는 빨라서 선진국이 되고 역사를 좋게 가져올 수 있는데, 몸뚱이는 부지런하면서도 한국 사람은 머리가 둔해요. 게을러!

그러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린 역사도 그렇게 가져왔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왜냐? 이거를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요. 발전이 돼도 감당할 수가 없고 경제가 넓어져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한계에 딱 닿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계로 본다 하면 우리가 뒤지고 있는 겁니다. 왜 뒤지고 있느냐? 전자에서부터 역사를 보십시오, 얼마나 뒤졌나. 남의 것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고, 남의 것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또 내 것 주려고 하지도 않으니, 지금 이북에서 하듯이 그렇게 하니까 선진국도 되기 이전에 그 난리를 만나고 집도 뺏기고 온통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얘길 하다 보니깐 딴 데로 샜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한데 뭉쳐서 그렇게 하는데, 또 팔정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여덟 가지 마음이 있어서 마음을 냅니까? 한마음 속에서 그것이, '옳게 생각하고 옳게 행하고 옳게 정진하고',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둘이 아닙니다. 한마음 속에서 여덟 가지가 나오는 것은, 바로 마음을 들어서 무심 유심이 같이 합해서 이게 팔정도라면은 사무 사유도 바로 없는 겁니다. 그냥 수레바퀴가 굴러갈 뿐입니다. 우리가 팔정도를 팔정도대로 본다면 "이거는 여덟 가지다." 이렇게 말을 하겠지만요, 여덟 가지가 바로 한 가지도 없습니다. 왜? 시공이 없이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똑바로만 안다면 나의 자성불, 불바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무의 세계, 유의 세계를 같이해서 굴린다는 뜻입니다. 이걸 바깥으로만 찾고 이론적으로만 배우지 마시고, 그 뜻을 알면 안으로 잡고 해서 바로 바깥으로 나간다면 이거는 심성 과학입니다. 이 도리는 생활이자 참선이고, 참선이자 생활입니다. 그래서 심성을 빼놓고는 과학을 이룰 수가 없고, 그때는 학(學)도 같이 쓸 수 있는 거죠. 전부 버릴 게 없으니까.

그러나 모든 것을 비울 때에, 없을 때에 한 가지도 버릴 게 없다는 문제가 나오는 거지 '이건 소승이니까 버리고 이건 대승이니까 갖고' 이런다면은 그렇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릇이 빌래야 빌 수가 없죠. 그릇 자체도 공했는데 말입니다. 공 자체도 공했는데, 응?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그래서 내가 아까 "벽돌을 쌓으려면 벽돌을 그냥 집어다가 쌓지, '벽돌 벽돌' 하고 쌓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겁니다. 쌓고 싶으면 그냥 갖다가, 집어다 쌓는 겁니다. 물 먹고 싶으면 그냥 물 마시는 겁니다. 그게 즉석에서 요리하는 방법이고 즉석에서 먹는 방법입니다. 우물쭈물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육바라밀" 이러는 거는 우리 인간이 깨달은, 즉 말하자면 그 본각심(本覺心)에서, "본각심" 이러면은 모든 것이 다 한데 합쳐진, 아까 얘기했던 불바퀴다 이겁니다. 그 불바퀴같이 굴리는 마음으로써 음으로나 양으로나 마음 한생각을 내주는 것이, 또 물질을 하나 줘도 이게 모두 같이 주기 때문에 보시가 되지만, 물질 하나 주는 것보다 마음으로 한생각 해 주는 보시가 그렇게 크단 얘기죠. 그래서 여섯 가지가 여섯 가지가 아니라 바로 본각심에서 모든 그 여섯 가지가 다 나오는 거죠. 여섯 가지가 아닙니다, 그게. 일체 하늘 땅 인간 전체를 한데 합친 그런 본각심이다 이겁니다.

그러니 거기서는 무궁무진하게 모든 거에 얽매이지 않고 그냥 슬슬, 멈추지 않는다는 소리가 얽매이지 않는다는 소리거든요. 그냥 슬슬 여여하게 돌아가니까 취할 것도 없고 안 취할 것도 없고, 닥치면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는 이런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또 닥치면 닥치는 대로 응해 주고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바로 보살의 육바라밀의 행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그거를 낱낱이 하나하나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이 여섯 가지를 다 뜯어서 요걸 하나하나 배우려면 어느 천 년에 여러분이 자신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름을 배우려고 하지 말고 그 육바라밀의 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세우기 위해서 당당할 수 있는, 떳떳할 수 있는 참다운 자유인이 되라 이 소립니다.

어느 승려들이 쭈욱 앉아서 공부를 하고, 모두 돌아앉아서 참선을, 좌선을 하는데 말입니다, 어느 스님이 쓰윽 돌아보더니 "그 얼굴은 참 잘 생겼구먼. 모두 돌아앉아서 벽을 보고 앉았는데 벽에 얼굴이, 사진이 딱딱 박혀 있구먼." 아, 그러더라는 거예요. "사진은 거기 있는데 어디서 사진을 또 찾노?" 아, 이러더라는 겁니다. 글쎄, 자기 사진은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서 벽에 무슨 사진이 붙어 있다고 벽을 쳐다보고 있느냐 이 소리겠죠. 그러니까 서슴없이 자기네들은 자기네들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선(禪)에는 어느 거든지 거기 붙어 돌아가지 않는 게 없으니까.

그랬는데 한 철 나자고 하더랍니다, 그 스님께서. 그래서 거기에서 한 철을 같이 나고 있는데, 그 스님이 참, 말이 무겁고 그 한마디 한마디 하시는 게 얼마나 따갑게 찔러 주시는지, 모두 숭배를 하고 거기 주지 스님으로 올려 앉혔답니다. 그랬는데 아예 "주지도 없고 나도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주지도 없고 나도 없다. 그런데 무슨 주지가 있느냐?' 이 소립니다.

그래도 그냥 그렇게 모두 좋아하고 모시고 있는데, 하루는 "메밀씨를 갖다가 심어라." 하니까 모두 메밀씨를 갖다가 심었답니다. 그러고는 그 스님한테 여쭤 보기를 "이제는 메밀국수나 메밀떡이나 메밀장국은 틀림없이 먹었죠?" 하니까 "두고 봐야 알지." 하더랍니다. 그래서는 또 메밀 싹이 나서 커다랗게 꽃이 피니까 이제는 "메밀떡을 꼭 먹었죠?" 하니까 "그것도 먹어 봐야 알지." 아, 또 이제 메밀꽃이 시들고 거기에 열매가 맺으니까 틀림없이 다 익었으니까, "먹었죠?" 하고 또 물으니까 "그것도 또 먹어 봐야 알지." 다 앗아서 가루를 만들어 놓곤 "스님! 스님! 이 가루를 이렇게 앗아서 다 해 놨습니다. 이제도 못 먹습니까?" 하니까 "그래도 먹어 봐야지." 그러더랍니다.

> 이 공부 하는 사람은 각오가 단단히 선, 견고한 마음으로써
> 모든 걸 용광로에 넣는 작업이 첫째 아주 중요합니다.
> 제일 중요한 것은 불이 벌겋게 타오르는 용광로와 같은
> 물러서지 않는 믿음을 가진 마음입니다.

나중에는 메밀을 개서 장떡국을 했단 말입니다. 동글동글하게 해서는 그냥 다 장떡국을 해서 처음 그릇에다 갖다 놓고는 "이제도 못 먹습니까?" 하니까, 하하하, "먹어 봐야 안다." 그래서 이제 발우공양을 하는데 전부 한 그릇씩 떠서 전부 놨단 말입니다. 떠억 입에다 넣자마자 "삼키지도 말고 뱉지도 말라." 하곤 그냥 호령이 났거든.

그래 어떻게 해야 옳겠습니까, 글쎄?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해야 그 메밀 장떡국을 잘 먹겠습니까? 예? 삼키지도 말고 뱉지도 말라 했는데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신도1(남) 그냥 먹죠. (대중 웃음)

큰스님 허허허. 그럼 그 스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그 스님이 말씀한 거는 무효가 되잖아요?

신도1(남) 생각 없이 먹는다는 말씀입니다. 일 초 전도 일 초 후도 생각 없이 순간에, 일 초 전도 일 초 후도 없이. 그러니까 생각 없이 행한다 이겁니다.

큰스님 우리 처사님, 말만 많이 하면 안 돼요. 그걸 안으로 자꾸 공부하셔야 돼요. 그 말도 맞습니다. 맞는데, 맞는 말을 자꾸 바깥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함이 없이 지금 했다고 봅니다, 함이 없이. 그 정도라면 그래도 처사님,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또 그랬는데, 아 이걸 입에다 넣고선 삼키지도 못하고 뱉지도 못하고는, 그 뜨끈뜨끈한 거를 말입니다, 허허허. 그러니 그것을 막돼먹은 분이 그렇게 한다면 별거 아니지마는, 참 그 엄중한 분이 그러시니 도무지 이거는 뱉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속에서 슬금슬금 그냥 그냥 녹아서 넘어갔거든. 허허허. 나중에 "그 떡이 그대로 있느냐?" 하니까 "조금 남았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고, "아유, 어떡하다 보니깐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러거든. "그것을 어찌 생각하느냐?" "그냥 삼킨다는 생각도 없이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거다. 그 도리를 알겠느냐?" 그때서야 그냥 고만 앉았던 제자들이 딱 깨친 거예요. 그때에 모든 것을, '아하! 이것이 생떡국이 생떡국이 아니고, 넘어가는 게 넘어가는 게 아니고, 뱉는 게 뱉는 게 아니로구나.' 이거는 그대로 아까 저 처사님이 하신 말씀과 같이 '그대로, 그대로구나.' 하고선 깨쳐 가지고 참, 열 명이 다 성불을 했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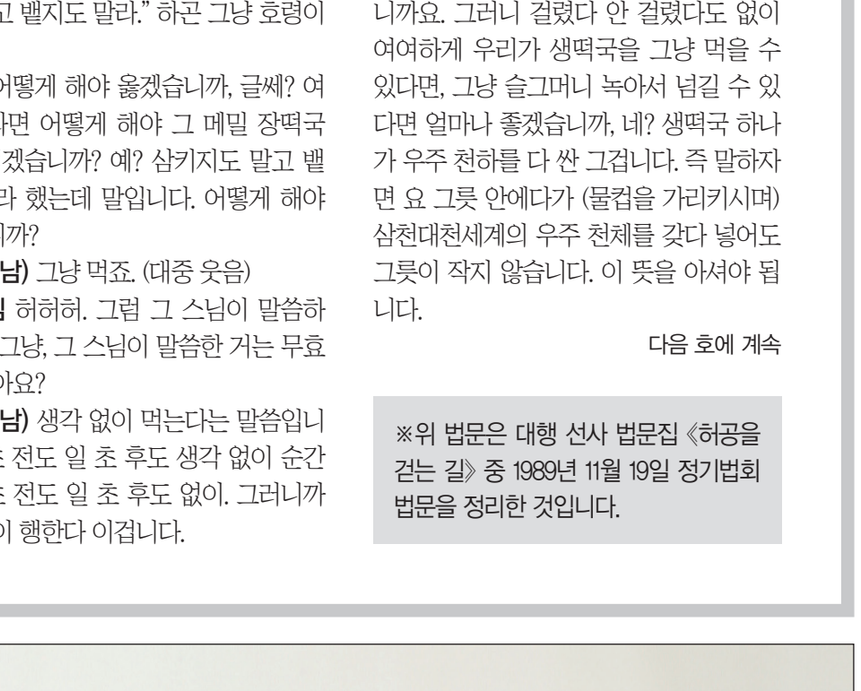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넘길 수도 없고 뱉을 수도 없는 것이 이 공부입니다. 그건 왜냐? 넉넉한 생각이라면 지혜에도 걸리지 말아야 한다. '지혜를 얻어야 한다' 이런 것에도 걸리지 말아야 된다. 지혜도 공한 것도, 그 공한 것도 또 공했으니, 거기에 제하거나 또는 거기에 또 걸리거나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것도 공했으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부처라고 하는 그 마음 자체도 바로 걸린 거니까. 그것도 없으니까요. 그러니 걸렸다 안 걸렸다도 없이 여여하게 우리가 생떡국을 그냥 먹을 수 있다면, 그냥 슬그머니 녹아서 넘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생떡국 하나가 우주 천하를 다 싼 그겁니다. 즉 말하자면 요 그릇 안에다가 (물컵을 가리키시며) 삼천대천세계의 우주 천체를 갖다 넣어도 그릇이 작지 않습니다. 이 뜻을 아셔야 됩니다.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89년 11월 19일 정기법회 법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이야기, 바로 당신의 삶입니다"

삶은 스쳐 가는 순간들의 연속이지만, 그 안에는 잊혀서는 안 될 소중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법보신문은 스님과 불자들의 수행 여정, 지혜의 말씀, 사찰의 역사와 전통을 한 권의 책으로 담아냅니다.
당신의 삶은 누군가에게 울림이 되고, 또 다른 이에게 길이 됩니다. 기록되지 않은 기억은 사라지지만, 글로 남긴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살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스님과 불자들의 삶은 현대 불교사의 소중하고 생생한 기록입니다.
법보신문은 깊은 존경과 정성으로 당신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것이 잊히지 않고, 누군가의 마음에 깊이 머물도록. 지금, 당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세요. 당신의 삶이 곧 가장 빛나는 가르침입니다.



법보신문 다르마기록문화연구소

- 스님과 불자를 잘 아는 전문 기획사
- 불교 이해가 깊은 전문 필진 확보
- 기획부터 책자 제작까지 원스톱 시스템
- 종이·전자출판 올인원(all in one) 서비스
- 고객 수요와 주문에 맞춘 제작 시스템

법보신문 다르마기록문화연구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문의 ☎ 070-4707-4965